

# “전주 농산물 가공식품 만나요”

### 한옥마을 전주식품홍보관 ‘전주맛배기’, 추석 명절까지 판매·시식행사 진행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생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홍보한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식품홍보관인 ‘전주맛배기’에서 24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미니리송편과 전통한과, 차류(콩차, 팥차), 미니리밀키트 등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전통가공식품 판매·시식행사를 진행한다.

주말 오후 2~5시에는 미니리송편과 전통한과 등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무료시식행사도 진행한다.

‘전주맛배기’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추석

제수용·선물용 미니리송편과 전통한과 외에도 △전주미니리떡 △미니리만두 △전주미니리떡갈리 △복숭아수제청 △복숭아북딩이떡 △전주배떡 △된장국밀키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 결과 농가와 농식품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출시했으며, 현재 전주 미니리를 활용한 밀키트 ‘미니리떡갈, 미니리찜닭’ 출시도 앞두고 있다.

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는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함께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용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니리과 배, 복숭아 등 전주대표 농산물캐릭터 개발과 굿즈 상품을 제작·홍보하는 등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대표 가공식품이 상품화될 때까지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 및 음식창의도시 전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12개 전주시립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 9월 20일~12월 3일 책놀이·그림책과 함께 하는 요리 등 총 24개 과목 진행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책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12곳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6세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은 △책놀이 △그림책과 함께 하는 요리 △그림책으로 배우는 초등영어 △예술독서로 나만의 그림책만들기 등 총 2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꽃심도서관에서는 ‘신나는 책놀이터,

책이랑 청의놀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완산도서관에서는 ‘책이랑 생태랑 놀자, 유아창의미술’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그림책과 함께하는 요리, 책이랑 놀아요(삼천) △그림책으로 배우는 초등영어, 신나는 과학놀이(서신) △참의GO!보드GO!, 책이랑 놀이랑(평화) △유아미술,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사(효자) △창의미술, 책이랑 놀이랑(송천) △어린이 과학놀이,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금안) △보드게임 끝판왕, 책이랑 놀이랑(인후)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로마 테라피, 오감만족 책놀이(아중) △코로나 중에 떠나는 세계여행, 예술독서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쪽구름) △하브루타 독서

모임,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건지) 등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어린이들은 매 수업마다 주제 도서를 활용해 책읽기와 그리기, 과학체험, 요리하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책의도시문교육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관리 강화

### 9월 7일까지 제조·판매업소·전통시장 대상 점검

전주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7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관리를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제조·가공업체 △식품점업체(제사 음식 조리·판매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취급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 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여부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 진열·판매 행위 △진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시는 제수용·선물용 식품인 한과류 등은 수거검사를 병행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다.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민선5기 시 복지환경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이 유통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방문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빠른 만큼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는 24일 사회혁신전주에서 학부모 등 전주시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놀이 인식교육을 실시했다.

# 놀이 인식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 전주시, 학부모 등 시민 대상 대면·비대면 병행 놀이 특강 진행

전주시는 24일 사회혁신전주에서 학부모 등 전주시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놀이 인식교육을 실시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정정수 고선순학교 대표가 그간 고선순학교를 운영하며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숲교육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또 자녀를 위해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과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오는 30일에도 비대면

(ZOOM) 방식으로 놀이인식개선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날 RT(반응성 상호작용 프로그램)·PIT(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 등 상호작용 전문기인 박종희 한솔미래교육 아카데미 임상심리사가 강사로 참여해 놀이를 통한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이다.

놀이 인식교육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naver.me/Go4QalFe)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아이놀이과(063-281-536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놀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아이가 마음껏 떠돌고 놀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놀이 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해왔다.

김선옥 시 야호아이놀이과장은 “이번 교육이 놀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매월 진행되는 놀이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 뿐 아니라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주요 도로변·등하굣길 통행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전주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도로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학기 개학 맞아 등하교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추석연휴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특히 명절 특수를 위해 가로수와 전봇대, 담장 등에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내걸거나 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으로 단속 및 철거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명절에도 적극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전주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